

부산시,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5년간 270억 투입

과기부 주관 국가공모 최종 선정 4대 추진전략 '부산형 AGES' 수립 첨단 AI 기반 실버경제 산업 육성

부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Age-Tech) 실증거점 조성사업' 국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270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실버경제 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중심의 실증 거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의 고령 인구비중과 해양관광 인프라를 접목해 시니어들이 일상 속에서 첨단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지난해 수립한 '초고령사회 부산의 에이지테크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의 비전으로 'AX 기반 글로벌 실버 경제 선도 도시' 약속을 내세우고, 4대 추진 전략 '부산형



'부산형 AGES' 이미지

/부산시

AGES'를 수립했다.

A (AX Expansion)는 돌봄·의료 분야를 넘어 문화·여가·금융 등 생활 전반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하고, G (Ground Testbed)는 5대 앵커랩과 리빙랩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형 지역 밀착 실증을 지원한다.

E (Enterprise Scale-up)는 에이지테크 기업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S (Spread Global)는 일본·미국·유럽 등 초고령 선진국

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담당한다.

3대 분야 8대 중점 추진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실증 및 고도화 (Reference-Up) 분야에서는 130개 이상의 AI 에이지테크 과제를 발굴·지원하고, 해양 관광과 연계해 크루즈·시니어타운 등으로 실증 영역을 넓힌다.

글로벌 진출 (Scale-Up) 분야에서는 연평균 23% 성장 중인 글로벌 에이지테크 시장을 겨냥해 45개 유망 기업

의 해외 실증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K-에이지테크' 브랜드 확산을 추진한다.

필드 조성 (Field-Up) 분야에서는 5대 앵커랩을 지정·운영하고, 전국 최초 시니어 복합단지인 '하하(HAHA) 캠퍼스'와 연계한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175개 이상의 기업 주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에이지테크 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세계 8위 스마트 시티와 15분 도시 등 시니어 친화 기반 최적의 실증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에서 검증된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고,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부산을 글로벌 에이지테크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8·15광복' 첫 모내기 행사

영주시는 지난 27일 안정면 오거리 최이한 농가 논에서 '2026년 8·15광복' 재배단지 첫 모내기 행사를 열었다. 시는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광복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하동군

내달 '야생차문화축제' 개막

'차오르는 설령, 하동에서'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29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대한민국 대표 차(茶)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번 행사는 전통 문화와 미래 기술, 글로벌 미식, 친환경 가치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하동야생차박물관에서는 송·고려시대 다 도구 등 120여 점을 특별 전시해 동아시아 차 문화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미식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축제 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시립아이돌봄 범서센터' 개소

울산시가 공공 돌봄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울주군에서 '울산시립아이돌봄 범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시의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서센터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공공 돌봄시설이다.

센터는 6월 1일까지 영아·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부산시설공단

'새모난 봄, 네모난 책' 운영

부산 도심 속에서 책과 자연, 휴식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이색 야외도서관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부산시설공단은 4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산복합문화공간새모야외계단광장에서 '새모난 봄, 네모난 책'을 운영한다.

동삼해수전을 배경으로 계단형 광장을 활용해 조성된 이번 야외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는 약 1500권의 도서가 비치되며 별도의 대출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지역산업 위기대응 팔 걷어

철강·금속분야 42개사 8억 투입 수출기업 1000만원 물류비 지원

전남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운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26년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기업 42개사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지난 3월까지 사업 공고를 통해 광양만권 산업위기지역 철강·금속 분야 및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분야별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회복을 위한 맞춤형 특화지원에 대상에스 앤엠, 광양테크 등 12개 기업이 선정돼 ▲생산·가동 안정화 ▲기술·디지털 전환 (DX) 고도화 ▲수주·사업화 지원 등에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제품 고급화 등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사업화 지원에 동양기업, 픽스 등 30

개 기업이 선정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인증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마케팅 ▲상품기획 등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가중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산업위기지역 철강 수출기업에 최대 1000만 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 신청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에 따른 정부 추경에 국비 증액을 건의했으며, 반영 시 물류비 지원을 넘어 물류시스템 개선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양만권 HRD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중기부의 추경에 반영된 수출 바우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주요 사업을 적극 안내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경북도, '청년 인생설계 학교' 순차 운영

금융·재무 중심 교육 강화

경북도는 28일 칠곡을 시작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2026 청년발전소-청년 인생설계 학교'를 순차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가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미래 설계 역량을 키우고 지역 내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특히 금융·재무 중심 교육이 강화됐다. 청년층에서 경제 지식이 자립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관련 교육 수요가 증가했고, 기존 만족도 조사에서도 금융·경제 분야 확대 요구가 반영됐다.

프로그램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주시 모의투자과 청년 통장·연금저축 활용법을 다루는 금

융 교육을 비롯해 연말정산 절세와 보험 보장 분석 등 경제 교육, 청약 전략과 부동산 계약서 이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활용을 포함한 자립 교육이 운영된다.

여기에 청년 CEO 공감 토크, 지역 봉사, 버스킹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순 교육을 넘어 참여자 간 교류와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참여자가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맞춰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은 포항, 김천,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영덕, 칠곡, 예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경북 청년발전소 인스타그램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창원시, AX 분야 200억대 수출 성과

하노버 메세 '창원 공동관' 운영

창원시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 박람회에서 200억대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 2026'에 4회 차 '창원 공동관'을 운영하고 제조 AX 기업 4개사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다.

참가 기업 4개사는 전시 기간 수출 상담 42건·312억 원, 계약 추진 35건·203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대비 상담 2.5배, 계약 4배에 달하는 성과다.

참가 기업들은 유럽 글로벌 기업과 3건의 업무 협약(MOU)도 체결했다. 이플로는 스웨덴 A사와 '시제품 공급 및 양산' 상호 협력 협약을, 튀르키예 H사와 '소형 수전해 수소발전기 공동 개발' 협약을 각각 맺었다. 삼일테크는 독일 B사와 'CNC 코팅 및 조립 공정 기술'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며 독일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참가 기업별 상담·계약 후속 조치를 앞으로 5년간 지속 모니터링해 실제 수출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단 구축' 속도전

5년간 우주·항공기업 지원 사업 추진

전남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업단의 조기 구축과 기업 유치에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이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흥우주발사체국가산단업단은 향후 발사체 기업 및 연관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립 기반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 우주발사 핵심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흥군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약 100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R&D)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입주 기업의 조기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목표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전남)=양수녕 기자